



시흥시 범죄집단 관피아조직 미래는 '깜깜'

데스크 칼럼



김양훈 논설위원

대한민국 자치단체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선출직이나 공무원은 모두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런 조직원들을 공직자라고 한다. 공직자들의 무게감은 행정 등 권력이란 것이 뒤따르고 걸맞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성실한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라는 의무까지 가지며 같은 국민이기 전 일반인과 전혀 다른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공직사회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법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양벌규정이란 행정법으로 우선적 처벌을 받고 고발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언론은 문제의 공직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 잘못하면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공공 목적으로 필봉을 휘둘러 지적한다. 언론에 대한 창구가 있는데 홍보실이란 부서가 존재하는 것이 기관 조직의 내부적 시스템이다.

공직자가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으면 냉혹한 판단을 받는다. 일반인과 달리 실명도 공개된다. 의무·성실의 기본적 요소를 위반했기에 비판의 강도가 높다. 공직자 의무를 저버린 책임론 때문이다.

공직사회도 언론대응에 있어 생태가 변했지만, 아직도 반론권은 제한적이다. 실제 공무원 명예의 손상보다 공익적 목적이 우선이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일반인과 동등

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인권 눈높이는 위험수위에 올랐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지만 말이다.

공직사회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때 조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홍보실이 나선다. 언론중재위원회 등으로 제소해 언론사의 시간을 빼고 혈세가 사용되는 광고로 재갈을 물리거나 제한한다. 관피아조직은 핑퐁을 쳤던 기억은 하지 않고 있다.

어느덧 정무적 판단을 남용하여 감이 되어버린 공직사회는 기관장 등이 부상하면 변호사 등 자체 기관에서 동원한다. 그 비용 또한 혈세다. 기업들처럼 일단 언론을 상대로 소송으로 대응한다. 즉각 기관장이 사과하거나 국민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오리발 작전이다. 공직자의 범법을 확인하려면 이리저리 발로 뛰면서 많은 시간이 허비된다. 막상 코앞까지 도달하면 인권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등 많은 핑계가 나온다. 국민 앞에 성실하게 공개가 원칙이지만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언론을 골탕을 먹인다.

막상 정보가 막히면 현장 취재기자는 큰 압박감과 송사에 휘말릴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 심증은 확실해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보도문을 빙글빙글 돌려야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글을 써야 할 때가 다반사다. 분명히 징계를 먹었는데 말할 수 없다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 극치를 이룬 시흥시 등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해당 부서에 사건 답변을 요구하면 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한다는 교묘한 말장난을 일삼거나 감사실, 홍보실에 연락해 진위에 물어보면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가 없다는 등 잘 모른다고 답변한다. 공직

자는 일반인이 아니기에 성실한 답변이 요구된다.

감사를 받아 징계가 확실함에도 언론에 협조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다. 또 자체 고발해야 함에도 감추는 자치단체가 있다. 그 실례로 시흥시를 지목해 설명하자면 시흥 기초단체는 범죄집단이라고 지적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시흥시는 최근까지 공직자 성비위 사건으로 도마 위로 오르며 논란이 일었다. 시흥시 도시공사 사장은 공직생활 중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혐의가 명백함에도 딸 가진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를 임명했다. 또 한 공무원 간부는 여성 공무원의 중요한 부위를 회식 자리에서 만지자 반발한 여성 공무원을 마이크로 머리를 가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시흥시 자체적 판단은 고발은 커녕 취재하는 언론 기자를 대상으로 자료제공을 중단했다. 명백한 업무방해다. 곧 홍보실 S 과장을 상대로 고발이 있을 예정이다.

왜 시흥시가 범죄단체란 오명의 소리를 들을까. 그 이유는 기부품을 잘 관리해 필요한 곳에 전달해야 하는데 관리는 커녕 공직자가 도둑질해 팔아먹었다. 분명히 횡령이지만 경징계를 받았다. 또 공직자가 청사 여성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음란행위가 발각됐다. 수십 사건이 고발됐지만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범죄자 신상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름을 제외해 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다. 깜깜이로 가는 시흥시의 현상이다. 언론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범죄자인 공직자의 신상을 알아야 한다.

시흥시의 민낯은 범죄자를 같은 공무원

이 지켜주고 있어 실로 충격적이다. 20건씩 되는 사건이 수원검찰청에 배정되어 곧 소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 전직 경찰관은 자신이 성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할 때 매년 사건은 몇 건씩 된다고 시흥시에 대해 밝혔다. 성희롱 당사자 공무원은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자는 사직서를 냈다. 말이 되는 행정인지 이해될 수 없는 자치단체로 규정된다.

개발도시의 시흥은 그린벨트 훼손 등 폐기물 바닥이다. 고발은 커녕 무대응이다. 기자가 시흥시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현실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국민을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공직자 비리가 확인됐다면 엄정한 징계와 수사기관에 고발이 필요했다. 또 폐기물을 묻어버린 업체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리고 임병택 시장의 사과와 시정에 관해 즉시 시정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했다.

시흥시는 잘못된 점을 꼬집어 보도하면 언론중재위원회로 제소한다. 여기서 중재위는 반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언론사를 향한 실사가 진행된다. 제소한 원고 측 입장도 반영해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알지만은 줄거리가 변한 것은 없었다.

거부하면 불성립을 선언하면 그만이다. 형사적 판단을 받아야 할 공직자가 경징계 등으로 무마가 됐는데 우호적 언론은 광고 때문에 재갈이 물린 상황인지 오히려 혼수를 두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공격자와 협조자를 구분하는 시흥시 행정을 보면서 이 나라 공직자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자괴감이 든다.

dpffhgl111@naver.com

제9대 연수구의회, '개원 1주년 기자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5일 주요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1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본 뒤 앞으로의 각오의 소신을 의원들은 밝혔다. 개회사에 이어 연수구의회 의장 인사 발언은 1년간의 주요성과 브리핑으로 시작됐다. 이어 의정활동 홍보영상 시청 후 의원들과 대화 시간에서 연수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은 답변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제9대 연수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설명했다. 특히 '마음을 울리는 감동 의회'라는 의정 목표를 갖고 의원들이 현장 활동한 배경의 스토리가 있었다.

한 사례가 소개됐는데 최근 폭우로 인해 주민들의 걱정이 컸다. 의원들은 4개 조를 편성해 각 주민센터를 돌며 관제소 등 공무원들과 손발을 맞추었다. 야근하는 A 공무원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고생한다는 마



제9대 연수구의회 개원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편용대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수구의회

음을 담은 야식 피자가 도착했는데, 오랜 세월 근무하면서 처음 겪은 사안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운영을 의원들은 몸소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집행부, 예결위와 관련해 의회는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없지만 불합리한 예산을 심사해 삭감하는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의무를 지겠다고 밝혔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52일), 임시회 7회(47일), 총 99일간의 회기를 운영했다. 조례안 제·개정 95건, 예산결산승인 8건, 기타·일반안건 72건 등 총 17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중 의원발의 건수는 55건이다. 의원 모두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고 평가된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 2022년 행복정책 연구회에서는 연수구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 수요조사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연구 행정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매진하고 있다.

문미순 기자 · 최재윤 기자

올 여름방학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제공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8월 여름방학 중 3박 4일 동안 사회적배려 대상 청소년 10명에게 일본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해외연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학교 밖청소년 등)에게 해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결정됐다.

해외연수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7월 17까지 구비서류(기관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를 갖춰 인천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내부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재윤 기자 cjy6148@naver.com